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로)

- 엮은이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펴낸이 : 이상경
- 펴낸곳 : 자인
- 발행일 : 2005년 5월 1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 ‘잊혀진 세대’의 역사 되살리기



이 호 응\_ 서울대 정치학과 69학번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의장,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의장, 제 7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인천·남동을, 건설교통위원회 간사(현)

1975년 5월 13일, 이 날은 이따금 언론에서 ‘역사 속 오늘’과 같은 코너로 다루어지거나 할 뿐 거의 잊혀진 과거다. 그런 짧은 글들에선 그날이 ‘긴급조치 9호가 선포된 날’, ‘민주주의에 시련을 가져온 날’ 등으로 그 날의 의미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되고 만다. 그러나 그런 간략한 서술을 보고 있노라면 내 머리 속, 내 가슴 속에는 그 시절의 기억들이 섬없이 펼쳐지곤 한다. 과거 민주화운동을 경험한 이들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한편으로는 아프면서도 심대한 의미를 지닌 시절이 그저 단순한 옛이야기로 전락해 별 의미없이 잊혀져 가는 것은 달갑지 않은 일이다. 나에게도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을 둘러싼 시절이 특히 그러하다.

우리 시대의 민주화운동에서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이 했던 역할은 매우 결정적인 것이다. 당시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은 정권 유지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주화운동세력과 인권운동가들을 탄압하는 극단적인 폭력성을 보였다. 탄압의 강도가 극에 달했던 만큼 일명 긴조 세대의 고통 또한 컸다. 그러나 긴조 세대는 그 처절한 고난의 시간들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기에 지난 시절을 돌아보면 아쉬운 생각이 앞선다. 따라서 당시의 시대상황과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혀 두는 것이 올바른 역사평가를 위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71년은 삼선개헌 반대투쟁의 연속이었다. 69년에 통과된 삼선개헌 덕분에 박정희는 세 번째로 대통령 출마를 했고 영구집권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학원기에는 학원병영화, 교련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런 흐름들에 대해 서울대 문리대 학생회장을 하며 반대투쟁을 하던 나는 학생회장을 3개월도 채 못한 5월, 학교로부터 제명당했다. 이후 이어지는 공개수배와 6개월 정도의 피신생활은 마침내 강제입영으로 일단락되었다.

군에서 꼬박 3년을 채우고 74년 복학하자 캠퍼스의 분위기는 나에게 또 다르게 다가왔다. 고학년이 된 나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집안형편을 생각하며 가정을 일으킬 책임이 있었다. 하지만 눈과 귀를 다 막고 암흑의 천지로 몰고 가는 군사정권의 폭압과 인권유린을 목도하면서 저버릴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을 느끼고 고민하고 있었다. 그래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던 나에게 75년 4월 김상진 열사의 할복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농대에 다니던 김상진 군은 양심선 언론에서 대통령에게 보내는 절절한 호소를 하며 할복으로 그 뜻을 더욱 공고히 했다. 그의 죽음은 잠시나마 주춤했던 우리들에게 강한 자극이 되었다. 할복 후 애국가를 불러 달라는 그의 요청에 따라 혼수상태에 빠진 그를 택시에 태우기 전까지 애국가를 불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얼마나 가슴이 저렸던가. 김근태 선배, 원혜영, 유영표, 최규성 등 우리 복학생들은 생명을 던져 민주주의를 외치고 산화해간 김상진 열사의 뜻 앞에서 우리가 구속, 제적을 두려워하며 숨죽여야 되겠느냐고 자책했고 그의 장례식을 준비해 나갔다. 장례식을 학교장으로 성대히 치르며 긴급조치9호의 폭력성, 비민주성에 정면으로 맞서 깨뜨리겠다고 결의한 것이다.

75년 5월 긴급조치9호라는 비상식적인 법은 한 젊은이가 죽음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엄혹한 현실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은 악법이라고 부르기도 차 힘든 폭력적 명령에 불과한 것이었다. 당시 국내적으로는 4월에 인혁당 관련자에게 사형 판결 후 24시간도 안 되어 사형이 집행되는 사법적 살인행위가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월남전에서 미국이 패배하였다. 이 시기에 박정희 정권은 정권의 취약성을 극복하고자 점점 강도높은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었고 그 최후의 폭압적 결과가 바로 긴급조치9호였던 것이다. 인간의 천부적 기

본권을 제한한 긴급조치9호는 이를 비방하는 행위뿐 아니라 비방하는 이야기를 듣고 신고를 안해도 처벌대상이 되었다. 언론·출판·집회·결사 등 기본권이 제한되었고 자유로운 토론을 벌일 장소는 어디에도 없었다.

사형 등 처벌의 강도가 높았던 기간 동안 잠시 모든 학원가, 종교계, 민주화운동 세력이 숨 죽이는 고요가 찾아오긴 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일 뿐이었다. 김상진 열사의 죽음 앞에 우리가 다시 굳은 의지로 행동에 나섰던 것처럼 언제든 불붙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당시 학교 내의 모든 집회는 원천봉쇄되었다. 학원병영화로 경찰병력은 학교에 아무 때나 들어와 진압했고 학생들을 잡아갔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군사작전하듯이 각 학교 건물에 있는 비상벨을 일제히 누르기로 하거나, 강의실에서 재빠르게 선전을 하고 나오는조를 짜는 등 치밀한 역할 분담과 계획을 수립하였다. 우리 복학생들은 향후의 지속적인 조직적 활동을 위해 전면지휘는 하지않고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였다. 재학생들이 몰려들어서 격렬한 투쟁이 벌어졌으나 산림동까지 조금 나가서 완전히 진압이 되고 말았다. 다음날 나는 강의실에 나가지 않으면 의심을 받을 것이라 판단하고 등교했으나 기다리던 형사 사복조에 체포되고 말았다.

관악경찰서를 거쳐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간 나에게는 역시나 고문과 취조가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들 벌벌 떨고 겁을 먹는 상황임에도 평소 잠이 많았던 나는 졸음이 왔다. 내가 취조 중에 꾸벅꾸벅 졸기라도 하면 느닷없이 대여섯명이 들어와 욕조에 머리를 박거나 구타를 하였다. 새벽녘 대공분실 백열등 아래에서는 이런저런 대화가 오가기도 했다. “자네들은 혁명이나 하겠다고 밤을 새우지만 우리 월급쟁이들은 뭐 하러 이렇게 밤을 새우냐”는 한 수사관의 자조 섞인 푸념이 기억에 남는다. 정권의 편에 선 그는 비록 가해자이긴 했지만 그의 푸념은 그 시대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씩씩한 표현들 중 하나로 느껴졌다. 그렇게 수많은 밤들이 흘러 가고 있었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대의 어둠은 그 밤들을 더욱 어둡게 만들었다.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기간은 연장해 봐야 20일 정도였지만 나는 한달 가량 갇혀 있었다. 그때 박원순 변호사를 만났다. 당시 1학년이던 그에게 선배로서 민주화운동의 필요성을 이야기해 주었고 신념의 비체계화로 인한 당혹감을 털어주는 것으로 그를 도왔다. 그저 집회에

단순 참가했던 그는 결국 기소유예 판정을 받았는데, 그가 구치소에서 산 기간은 6개월이나 되었다. 이는 당시 정권의 폭력성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례일 것이다. 감옥에 있던 나에게도 처음 6개월 간은 면회가 일절 금지되었다. 그것은 박정희 정권이 작은 사안들에도 규정을 벗어난 처벌을 할 만큼 사회의 민주화 요구를 두려워했고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반증이었다.

우리의 투쟁은, 보도한다는 것 자체가 긴급조치9호 위반이었기에 당시 신문에 한줄도 보도되지 않았다. 그저 입에서 입으로 동지들과 시민들에게 전달될 뿐이었다. 정권이 필요할 때는 긴급조치4호 위반으로 민청학련사건을 언론에 떠벌리고 온갖 용공조작과 선전을 해댄 것과 달리 이번에는 우리가 수백 명이 잡혀갔는 데도 길으로는 잠잠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묻혀진 채 감옥에서 2년의 실형을 고스란히 다 살았다. 군대를 안 갔던 친구들은 다시 강제입영되는 이중의 고통까지 당하며 그시대를 보냈다.

갇혀있던 2년 동안 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를 누르고 싶었고 자연이 그리웠다. 항상 따라다니는 교도관이 나 홀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이른바 ‘삼천리 독보권’이 사무치게 그리웠다. 한참 혈기왕성한 20대 청년에게 갇힌 생활은 실로 가혹한 것이었다. 입소하기 전 민중혁명에 대한 굳은 결심으로 개인적 욕구와 본능을 최대한 억누르고자 했던 내 생각에도 변화가 왔다. 결혼도 하지 않고 세상을 변혁하고 새로이 건설하겠다는 열정으로 살려고 했던 나는 입소 후 많은 생각을 했다. ‘인간의 욕망을 과연 억제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자연스럽게 따라왔고 ‘인간의 본성이 과연 어디까지 교화될 수 있는가’라는 것도 고민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본능대로만 행동해서도 사회가 유지될 수 없지만, 철저히 정제된 공산사회라는 것도 또한 가능한 것인지 회의가 들었다.

나는 두가지 신조가 크게 바뀌는 내적 변화를 겪었다. ‘종교는 아편’이라는 마르크스주의 입장에 공감하던 나는 인간의 한계를 생각하면서 여태까지 단정했던 무신론에 회의하게 되었다. 또 하나는 혁명과 결혼하겠다는 일방향적인 치우침이 아니라 현재 살아가는 내 개인적인 삶도 충분히 소중하다는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그런 삶 속에서 민주화운동을 함께 조화시켜나가겠다고 생각을 정리하고 출소하였다.

79년 나는 생업과 민주화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출판업을 하면서 지냈다. 긴급조치9호는 그 해 10월 26일 궁정동의 총성으로 마침내 79년 12월 종말을 맞았다. 최규하 총리가 대

통령 서리를 하면서 긴급조치9호 체제는 일단 끝난 듯 했지만 계엄령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계엄령 아래 모든 집회와 시위는 금지되었고 군부 내의 권력투쟁은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었다. 반대편의 우리들은 민주화와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는 운동을 준비 중이었다. 당시 결혼식을 앞두고 있던 나는 공교롭게도 11월 3일 독재자의 장례식과 결혼식 날짜가 겹쳐 이를 변경하는 에피소드를 겪기도 했다. 그때 누군가가 사찰기관의 눈을 피해 하객을 가장해 모일 수 있는 결혼식장이 집회로 이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친구의 결혼식을 난장판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 하여 가짜 신랑과 신부를 내세우는 일명 '명동 위장결혼사건'이 11월에 일어나게 되었다. 한편 나는 무사히 결혼식을 마치고 알리바이를 위해 일주일간 한려수도, 전라도 등으로 신혼여행까지 다녀왔다. 동지들의 따뜻한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우리 투쟁의 일차적 대상이었던 긴급조치9호는 그렇게 사라졌지만 다시 광주에서의 진압을 거친 전두환 군부정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짊어졌던 서울의 봄은 군홧발에 짓밟혀 스러져 갔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억압적인 사회 외곽의 껍질을 깨뜨리는데 기여하였다. 민주화의 함성을 제대로 외치게 되기까지 긴 세월이 걸렸다. 그 마지막 껍질을 뚫고 나오는데 긴급조치9호 반대투쟁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민주화운동사에서 마땅히 그렇게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시 전혀 보도되지 않았고 남아 있는 자료 또한 변변한 것이 없기에 제대로 된 평가 또한 미진했다. 스스로를 '잊혀진 세대'로 명명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러기에 더욱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우리들의 투쟁은 암흑한 상황 때문에 일회적인 사건으로 잠재위졌지만 민주화운동의 연속성 위에 있으며 80년대 서울의 봄, 마침내 87년 6월 항쟁, 노동자들의 대투쟁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이었다.

그 시절에 소시민적 삶에 충실하면서 양지에 살던 많은 사람들은 가끔 나에게 이렇게 묻는다. “지나간 시간들이 고통스럽지는 않았는가” 하고 말이다. 긴급조치9호 반대투쟁 이후에도 나는 징역, 수배생활을 하였고 그런 까닭에 내 이삼십대는 도피, 강제입영, 수배로 집철되어 왔다. 하지만 과연 내가 고통스러웠나 돌이켜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내가 신봉하는 가치를 위해 전력투구한 것은 가치실현을 위해 사는 보람을 내게 안겨다 주었다. 물리적인 고통, 경제적 궁핍이 뒤따랐지만 수도승이 절제로 인해 기쁨을 느끼듯 나는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를 위해 사는 것으로 안락함을 능히 상쇄하는 기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나는 어떻게 보면 과거 민주화운동의 보상으로 국회의원이 되었고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위치에서 안락한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동지들이 수없이 많다. 지금까지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동지들이나 가족들이 사회적으로 충분한 명예회복을 받지 못했음은 물론 보상 또한 받지 못하였다. 이런 사실들을 나는 언제나 가슴 아프게 느끼며, 이들을 위해 현재 나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다짐한다. 완전한 민주화라는 것이 있을 수 없겠지만 현재까지 우리가 이루어 낸 민주화를 역사적으로 정당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역사 속에서 되살릴 것은 되찾는 그 과정 속에서 '잊혀진 세대' 또한 제대로 된 이름을 가지게 될 것이다.